

생기 잃는 자연사박물관, 살아있는 박물관이 되려면

이지민 기자 delicado@khu.ac.kr
한진석 기자 1_jinseok@khu.ac.kr

1978년 개관해 9만여 점의 표본을 갖고 있는 자연사박물관은 자연보존과 생명의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공간으로 설립되었다. 표본 규모는 전국 대학 박물관 중 최상위급이다. 자연사박물관은 경희학원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사회 관람객의 교육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다른 박물관을 찾아 먼 곳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회기동 인근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고 있다.

자연사박물관을 15년 넘게 관리해 온 안철범 학예사는 “옛날에는 학교 학생들이 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오지는 않았다”면서도 “2016년부터 사전준비를 시작해 2017년부터 필수 교과인 ‘빅뱅에서 문명까지’ 수업 과제에 박물관 관람이 추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과제를 위한 일회성 방문이 대부분이다. 잠재력을 갖춘 자연사박물관이 생기를 잃고 있는 것이다.

자연사박물관 측은 관람객 감소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구조적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속사정을 내비쳤다. 안 학예사는 “공간을 홍보하고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할 인력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현재 박물관 정직원 1명은 학예사와 기능직 직원 각각 1명이 전부다. 계약직 직원도 1명 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다. 2017년까지 2명으로 유지되던 학예사 정원마저 1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2019년 새 수장고에 보관될 표본 9만 점 가량



9만여 점의 표본을 갖춘 자연사박물관의 내부 모습이다.

(사진=이지민 기자)

“
박물관을 무언가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도 생각해주었으면 좋겠다

”

을 직원 2명이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박물관 운영의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인력 부족으로 자연사박물관 측은 2018년 초부터 주말 운영을 중지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관람은 평일 10시부터 17시 사이에만 진행되고 있다. 주로 주말에 방문하는 외부 관람객 수가 줄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 새로운 전시 프로그램 기획 등의 제안은 언급조차 꺼려하는 것이다. 안 학예사는 “주말에는 박물관 문을 열지 않아 일반 관람객들이 오지 않고 있다”며 “대체 방안으로 한 달에 두 번, 수요일 야간 개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학예사는 학교 측에 지속적으로 인력 증원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측에서는 외부 관람객을 모집할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박물관 내부에서는 방과 후에도 관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 중”이라면서도 “이 역시 인력 문제를 해결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자연사박물관에 학생 참여 기회를 제공하면 인력 부족 문제를

를 해결하는 동시에 관람객 수를 활성화하는 결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문화관광컨텐츠학 소속인 A 교수는 “자연사박물관은 경희학원 내 여러 학생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만큼 각급 학교와의 연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라며 “학예사를 꿈꾸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 혹은 생물학과 등 관련 학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 체험을 돕고 전공 학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새로운 학생 연계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덧붙여 자연사박물관이 이처럼 다양한 학생들의 참여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거듭난다면 인력 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밝혔다.

실제 서울대 측은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슨트 봉사자를 모집, 미술관 전시회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관련 분야에서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인력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답이다.

실제 자연사박물관도 학생과의 연

계 지점을 높이는 데 고민이 많다. 지난달에는 ‘학부생 서포터즈’ 모집을 시작했다. 모집된 서포터즈들은 학예사의 교육을 받아 직접 표본을 촬영하고, 박물관의 전시와 홍보를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 서포터즈는 세 가지 부서로 나누어 진행된다. 홍보, 표본, 전시이다. 장학금도 지급된다.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백서림(생물학 2020) 씨는 “6층까지 넓은 전시실이 있고 다양하고 희귀한 표본들도 있어 많은 가능성이 잠재된 공간이라 생각한다”며 “전공 분야와 관심사가 일치해 서포터즈로 지원하게 됐다”고 답했다.

현재는 다섯 명의 학생들이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다. 그 중 한 명은 자연사박물관에 특별한 관심을 표하기도 했다. 안 학예사는 “국제캠퍼스 학생 한 명이 장학금과 관련 없이 박물관에 관심이 있다고 연락해왔다”며 “그 학생이 전시, 해설 분야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했다.

학생 참여 공간을 늘리는 시도도 진행 중이다. 안 학예사는 우리학교 학생들을 위해 2층 전시실에 스터디 공간 등을 조성했다. 2층 전시실엔 아예 테이블과 콘센트, 와이파이도 설치되어 있다. 그는 “공부하는 공간과 같이 편하게 박물관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박물관을 무언가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도 생각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 학예사는 “학생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찾아와 많이 물어보고 체험했으면 좋겠다”며 “어떤 박물관이든 한번만 보고 끝내면 아쉽다. 여러 번 방문해도 언제든 환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박물관이 학생들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구성원들의 참여와 학교 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II유형(긴급경제사정곤란자 지원) 신청 안내

- 지원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의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 지원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2020년 1월~5월 중 학부모가 비자발적 실직 또는 폐업(휴업 제외)상태인 학부생
 - ※ 신청일 기준, 재취업 및 재창업한 경우 제외
 - 2020-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등록금 범위내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 자
 -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 교내 경희목련장학 신청 가능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대학에서 심사 후 지원 여부 결정)
 -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지원 (9·10학기 포함)
 - ※ 단, 소득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학생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등록금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10% 지원
- 지원기간** : 2020-1학기 (7월 중순 이후 장학금 지급 예정)
 - ※ 실직·폐업발생 기간별 지급 시기 : [1학기] 1~5월 / [2학기] 6~10월
 - ※ 한 학생에게 한 학기만 지원 가능(2020-1학기 지원자는 2020-2학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지급방법**
 - 학생명의 계좌이체 지급
 - 재단 내/외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금 상환 처리
- 장학금 지급 제외자**
 - 해당학기 미등록 휴학자
 - 졸업유예자(정규학기 초과자) 중 국가장학금 수혜 한도(횟수) 초과자

- 자퇴 및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자
 -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자
 - 교내외 장학금 수혜로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기존 II유형 지원분과 긴급경제사정곤란자 지원 합산액 기준)
 - 중복지원 미해소자
- 신청기간 및 방법** : 2020.6.8.(월) ~ 6.19.(금), ‘우편’으로 서류 제출
 - ※ 주소 :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청운관 1층 학생지원센터(장학)
 - ※ 원본 확인을 위해 우편(등기) 접수만 진행함(온라인 및 팩스 제출 불가)
 - ※ 서류 분실 위험이 있으니 ‘등기우편’으로 송부 /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 이라고 명시할 것
 - ※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구분	증빙서류	발급방법
공통	장학금신청서	첨부양식 참조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증명)	온라인발급(정부24 홈페이지)
퇴직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 필요
	(비자발적 실직여부 확인)	
폐업	폐업사실증명서	온라인발급(정부24 홈페이지)

 -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0.6.5.)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기타 유의사항** :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탈락자 중 이번 건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자로 선정된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 한도에 반영됨
 - ※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가 1회 차감되므로 신중한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미래혁신원 학생지원센터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신입생 모집 (2020 후기 추가모집)



구분	일정	비고
접수기간	2020.6.15(월) 10:00~28(월) 17:00	• 접수처 : www.uwayapply.com
고사장 안내	2020. 07. 09(목) 15:00~	•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http://edu.khu.ac.kr)에 공지
고사비고	2020. 07. 11(토) 10:00~	• 일반전형, 특별전형 지원자 전체
합격자 발표	2020. 07. 18(목) 10:00	• 시험 시작 20분 전까지 입실 • 시험장소 : 서울캠퍼스 경운관, 국제캠퍼스 멀티미디어교육관
합격자 등록	2020. 07. 20(월) 10:00 ~ 22(수) 16:00	• 세부사항은 신입생 모집요강 내 수험생 유의사항 참조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